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for the week of July 1st.

EB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EBS programs and their times.

휴가철 시청자 시선을 잡아라

방송 3사, 주말 대표 예능프로 시청률 고심 새 멤버 투입... '스타급' 게스트 섭외 나서



방송가가 두려워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시즌에 맞춰 예능 프로그램들은 수영장을 배경으로한 아이템을 전진 배치하는 등 시청자들을 TV 앞에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 주말 예능 프로그램인 SBS TV '일요일이 좋다-패밀리가 떴다'와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MBC TV '무한도전' 역시 휴가철을 상대로 어려운 승부를 치러야 한다.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한때는 시청률 30% 고지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던 '패밀리가 떴다'는 올 들어 다소 주춤한 상태다. 20%대 전후의 시청률에 머물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일에는 멤버 교체도 이뤄

져 시점대에 오른다. 박예진과 이천희가 떠나고 박시연과 박해진이 새롭게 투입된다.

'패밀리가 떴다'가 주춤한 사이 '1박2일'이 상승세다. 지난해 '패밀리가 떴다'의 출현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1박2일'은 올 들어 박찬호를 게스트로 섭외하고, 시청자 80명과 단체 여행을 떠나는 등의 변화를 주면서 다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과 28일 2주 연속으로 방송된 '혹서기 대박캠프'가 나란히 3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43.3%까지 치솟아 '패밀리가 떴다'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1박2일'은 게스트 섭외도 계속 추진 중이다. 박찬호 급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의미도 있는 게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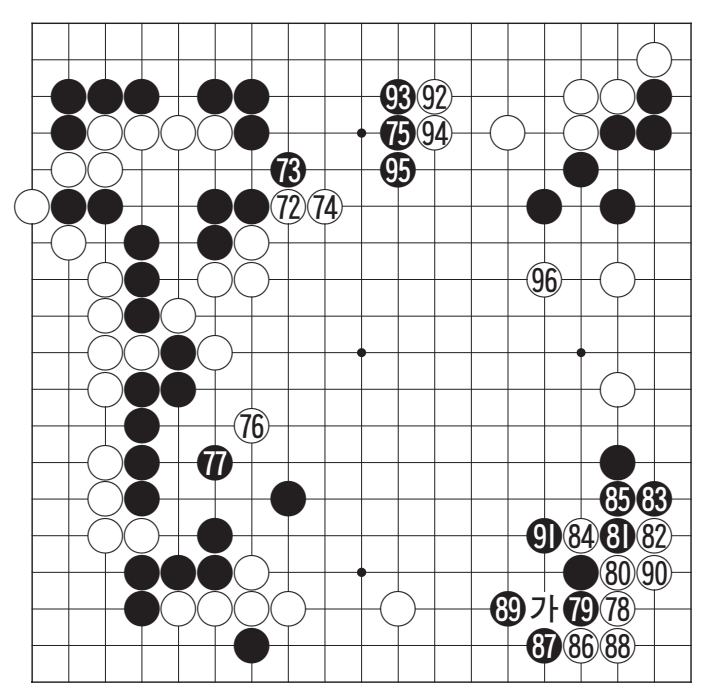
면 섭외가 되는 대로 언제든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무한도전'은 사실 지난해부터 하락세다. 2007년부터 무섭게 불붙은 인기는 지난해 1월19일 시청률 30.4%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서서히 하락세를 그리더니, 이내 10%대 초중반까지 내려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여느 프로그램 같으면 극약처방을 동원하며 비상에 걸렸을만한데, 정작 제작진은 시청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여름철에는 그에 맞는 아이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4일과 11일에는 멤버들이 가수 7개 팀과 연합해 '올림픽대로 가요제'를 펼치고 그를 통해 앨범까지 내는 과정이 방송된다.



쟁탈의 요소

2회전 2국 4보 (72~96)



'쟁탈의 요소' 백이 72, 74로 중앙을 보장하자 박은섭 5단은 당연하다는 듯이 노타임으로 흑 75로 벌렸는 데 이 수가 또 사려 부족한 수로 소극적인 수였다. 이 수로는 아예 92에 뒤서 백의 응수를 강요한 다음 우하귀를 '가'로 굳혀야 했다. 우하귀가 현 국면에서 피아간에 쟁탈의 요소로 백이 먼저 78로 3-삼에 쳐들

어 온 순간 흑은 집부죽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흑 79 쪽에서 막은 수도 무기력한 수. 이왕 이곳을 당한 바에야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 쪽에서 막고 7까지를 선수한 다음 9로 싸우면 백 두점의 공격에 희망을 걸고 싶다. 상대적으로 이창준 5단이 기세를 타고 있다. 박득이 풀리기 시작하니 너무도 쉽게 풀리고 있다. 백 90까지 우하귀를 도려내고 92, 94로 큰 끝내기를 해치운 다음 96으로 우변까지 보강해 컷노래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음 5월 9일 丁未)

- 36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다. 48년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참거래가 될 수도 있다. 60년생 숨이 가쁜 하루다. 72년생 아내가 힘이 든다 아내를 살펴봐라. 84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행운의 숫자: 11, 41
- 37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49년생 오전은 흉하나 오후는 길하다. 61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나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3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85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12, 30
- 38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0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62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74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 39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51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63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75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행운의 숫자: 20, 38
- 40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즐겁게 진행하라. 52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64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76년생 피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에 많이 하라. 행운의 숫자: 21, 32
- 41년생 뜻밖의 재단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53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겨라. 65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진다. 77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22, 34
- 42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54년생 속전 속결로 추진하면 대재가 생긴다. 66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78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따라야 한다. 행운의 숫자: 01, 43
- 43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을 마라. 55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67년생 오후에 화재주의에 신경써라. 79년생 외려내려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행운의 숫자: 02, 31
- 44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6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봐라. 68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0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보고 안부를 확인 해봐라. 행운의 숫자: 14, 28
- 45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57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라. 69년생 충추고 노래를 하니 즐겁기만 하다. 81년생 친척의 보증을 서지 마라 흥한일이 생길까. 행운의 숫자: 17, 16
- 46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잘해야. 58년생 시비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70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2년생 부부간에 다정한 시간을 마련하라. 행운의 숫자: 23, 42
- 47년생 불의의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59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71년생 상대가 원한만 무엇인가 두주라. 83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4, 44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1337>', '오하요우 니혼고 <1337>', '니하오 쯙구위 <414>', '한자 이야기 <1054>'.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text, dialogue, and vocabulary.